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A형) 분석

- 국어영역 유현주 (문법의 끝, 문학 개념의 끝, 두드림 모의고사 A형, B형 저자)

1. 출제 경향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 모든 분야가 대부분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및 2014학년도 6월 모평과 큰 포맷은 유지하여 출제되었고, 주목할만한 점은 각각의 유형별 특징이 조금 더 강화되어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다.** 공통 문제는 화법 4~5번, 작문 9~10번, 문법 14~15번이 연계되었고, 독서 영역에선 6월 모평에서 예술 지문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9월 모평에선 사회 지문이 공통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문학은 동일하게 고전시가와 극/수필이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6월 모평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A형의 독서 영역 중 ‘생활독서’ 분야가 생략되었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누락하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기존의 공부 방법대로 독서영역 전 분야에 대한 학습은 지속해야 한다.

화법은 ‘발표’, ‘대담’, ‘대화’ 지문으로 구성되었고, ‘대화’지문은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6월 모평과 유사한 형태이고, **전반적으로 예비수능, 6월 모평의 출제 경향과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화법의 출제 유형에 대한 이해만 이루어지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아직 유형을 정리하지 못한 학생들은 꼭 정리해두길 바란다. 의외로 최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화법, 작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문제 유형에 아직 적응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반드시!! 꼭 꼭! 정리해두길.

작문은 ‘상황에 따른 개요 작성’, ‘자료의 활용 방안’, ‘조건에 맞는 표현’, ‘글쓰기 전략’, ‘고쳐쓰기’로 구성되었고, ‘글쓰기 전략’과 ‘고쳐쓰기’ 문항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 또한 6월 모평과 유사한 형태이고, 다만, 특징은 6~8번이 모두 한 지문에서 출제된 점인데, 문제 유형은 동일하게 출제되어 실제로 난이도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작문은 화작문 가운데 기존 수능과 유사한 지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작문에서 자꾸 오답이 나오는 학생은 이전 기출 문제들도 꼭 포함하여 같이 풀어보길 권한다.

문법은 ‘음운’, ‘어미’, ‘단어’, ‘의문문’, ‘문장의 중의성’이 출제되었는데, ‘의문문’과 ‘문장의 중의성’ 부분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6월 모평과 유사하게 문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많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게끔 대부분 개념만 차용하여 새로운 문제 형태로 출제**되었다.

11번인 ‘음운 변동’에 관한 경우, **<보기>에서 개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 이러한 출제 유형은 충분히 수능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개념을 못 갖춘 학생들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13번의 사전 활용하기 형태의 문제 역시 문제 유형은 익숙하지만, 문제에서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품사’, ‘피동’, ‘접사’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 여러 영역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문법 개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5번은 B형의 문법2 중 ‘잘못된 문장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A형·B형 공통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 말은 A형에서도 충분히 심화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문법2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상 ‘국어의 얼’ 부분을 제외하고 문법2의 내용은 교육과정 자체가 문법2의 내용이 문법1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문법1의 내용과 교차하는 지점이 많다. 문법1의 내용으로 충분히 문법2까지 심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B형의 중세 국어 문제를 제외하고는 A형 학생들도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B형 문제를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방금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A형 학생들이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B형 오답률 5위에 15번 문항이 있다는 것은 B형 학생들도 해당 범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독서는 과학, 기술, 사회, 인문, 예술로 구성되어 ‘생활독서’ 부분이 빠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차이가 꼭 수능으로 연결되리란 보장은 없으므로(6월과 예비수능엔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뜨리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꼭, 기출 문제 및 EBS 교재에 출제된 지문들을 빠뜨리지 않고 보길 권한다.** 특히, 생활독서 지문은, (외부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관해 열어두어야 하므로)

그러나, A형임에도 불구하고, EBS 교재의 내용이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1, 2위에 해당하는 지문은 ‘기술’과 ‘과학’ 지문**이다. 모두 연계되었다는 사실이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지문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16~18번에 해당하는 과학 지문의 경우는 지문의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EBS에서 언급된 개념은 아예 다른 말로 바꾸어 지문을 재구성**되었다.

그에 해당하는 심화 <보기> 지문 조차 연계된 것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문제로 출제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특히 독서 영역의 학습은 '현상'보다 '본질'이 중요하단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된다. 물론, 모든 영역이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독서 영역은 더욱 두드러진다. 수능에서도 EBS 체감연계율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디어만 차용하고 그것을 아예 새롭게 구성하여 처음보는 지문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교재를 외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아예 버리고, 남은 시간동안 수능 지문들 가운데 어려운 지문들을 분석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건설적인 생각이다. 새로운 지문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독서 영역의 지문의 구조나 문제의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이라면 수능날까지 수능 문제를 붙들고 있을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부디, 꼭, 반드시.

문학은 고전시가와 희곡이 공통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시는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현대소설은 전광용의 꺼삐딴 리(이것만 EBS 연계 되지 않음), 고전시가는 안민영의 매화사, 고전소설은 숙영낭자전, 희곡은 이근삼의 원고지가 출제되었다. 문학은 EBS의 작품이 많이 연계되고 있다. 문항의 아이디어 또한 차용되었다고 하지만, 문항 유형은 기존 수능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EBS에 나온 작품을 잘 분석해 놓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작품 분석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고전시가는 6월엔 조선후기 작품인 '시집살이 노래'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B형에서도 고어가 노출되지 않았지만, 안민영의 매화사는 A형은 현대어역, B형은 고어 표기로 표기에 차이를 주었다. 역시 문제는 동일하다. A형 학생들은 고어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그대로 작품 해석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학은 주관적 해석이 존재하면 안 된다. (작가는 주관적으로 글을 쓰겠지만, 해석하는 사람은 주관적일 수 없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해석이 전국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땐 더더욱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문 안에서 철저하게 답을 찾으려고 근거를 정확하게 대응시킬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관점 때문에 40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보기>를 근거로 작품을 분석하였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니 이러한 부분에 신경써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2. 실제 연계 상황

A형 문항		EBS 교재	페이지 및 문항
1-2	화법	수능 특강 국어영역 국어A형	p. 27 / 4번
3	화법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71 / 4번
4-5	화법(공통)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15 / 21번
6	작문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55 / 2번
7	작문	수능 특강 국어 영역 국어A형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55 / 2번 p. 35 / 54번
8	작문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135 / 7번
9-10	작문(공통)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106 / 1, 2번
11	문법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40 / 61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9 / 13번 p. 33 / 11번
12	문법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13
13	문법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33 / 1번
		수능 특강 국어 영역 국어A형	p. 84 / 3번
14	문법(공통)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24 / p. 132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p. 93 / 2번
15	문법(공통)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p. 130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131-135 p. 39 / 69번
16-18	독서(과학)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117-118
19-21	독서(기술)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86-87
22-25	독서(사회)[공통]	비연계	
26-27	독서(인문)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113-114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52-53
28-30	독서(예술)	비연계	
31-33	현대시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수능 특강 국어영역 국어A형	p. 228-229
34-37	현대소설 (전광용, 꺼삐딴 리)	비연계	
38-40	고전시가[공통] (안민영, 대화사)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114 / 226-227번
41-43	고전소설 (작자미상, 숙영낭자전)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120-121
44-45	희곡 (이근삼, 원고지)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p. 184-187